



안 먹어도 맛있을 비주얼이다.
물론 그렇다고 안 먹지는 않는다.
포장지만 벗기고 뚜껑 덮은 채로 가정용 전자레인지에 2분간 돌렸다.



무야~ 호~

GS25의 '정통새우로제파스타'는 예전에 편의점 알바하면서 돈 주고 두 번 사먹었다.

어지간해서는 돈 안 쓰고 폐기로 끼니를 때웠던 걸 생각하면 그만큼 괜찮은 비주얼과 맛이었던 거지.
이 제품도 그 못지않게 비주얼과 맛있는 냄새까지 굉장히 만족스럽다.



그릇째로 훑아먹기에는 물렸나 보다

역시 맛있었다.
새송이 식감도 좋고, 닭고기 양념육도 저렴한 맛이 아닌 구운 치킨 맛이 나서 좋고.
소스는 색상에서부터 느꼈던 거지만 로제라기보다는 성분표에 있는 것처럼 투움바에 가까운 듯하다.
살짝 물리는 감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만족스러운 한 끼였다.